

| GREEN ISSUE 2014-20 |

강원도 기후변화대응 민관협력사업 추진

임기중 책임연구원 | 2014년 12월 24일

Contents

1. 배경 및 목적
2. 녹색기후기금(GCF) 민관협력사업 논의동향
3. KOICA 민관협력사업 추진현황
4. 강원도 기후변화대응 민관협력사업 우선 추진분야
5. 강원도 기후변화대응 민관협력사업 추진 전략



강원도 기후변화대응 민관협력사업 추진

SUMMARY

《 현안 및 배경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세계의 신기후체제 도래
 - ※ 모든 국가가 2020년 이후의 감축목표 준비. 2015년까지 신기후체제마련 위한 로드맵 제출 합의 (COP19, 바르샤바)
- 기후변화대응에서 민관협력 중요성 대두
 - ※ 사회공헌형 CSR에서 전략적인 CSR 및 CSV 전환 등 민간재원의 참여논의 활발
 - ※ 개발협력에 있어 유엔의 MDGs가 2015년에 종료되고 기후변화 민관협력을 강화한 SDGs로 전환되는 국면
- 녹색기후기금(GCF)과 KOICA의 개도국 지원사업 논의 동향 분석에 기반을 둔 강원도의 기후 변화대응 민관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마련 필요

《 브리프의 주요내용

- 최근 녹색기후기금(GCF)내 이사회 결정사항 분석
- 녹색기후기금 사업방향 선정 논의 동향 분석
- KOICA 민관협력 분석
- KOICA의 기후변화대응 민관협력사업 추진현황 분석
- 강원도 기후변화대응 민관협력사업 추진전략 수립

《 강원도의 정책적 시사점

- 기후변화대응 국제협력사업 추진 시 강원도의 강점분야 부각
- 강원도 기후변화대응 민관협력사업 우선 추진분야 선정
- 선정된 분야별 강원도 SWOT분석
- 강원도 기후변화대응 민관협력사업 추진전략 수립
 - ※ 기후변화대응 민관협력사업 추진 장기 로드맵 제시
 - ※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민관협력 사업추진 협의체 구성
 - ※ 분야별 장·단기 사업추진 전략 수립



1 배경 및 목적

1. 신기후체제 도래

- 신기후체제란 2020년 이후부터 적용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말함.
 - 2008년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 한정되어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어 별다른 효과 보지 못함.
- 이에 각국은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총회에서 2020년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체제 마련에 합의. 신기후체제의 핵심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참여하는 것.
- 개도국은 2020년부터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데는 합의하였으나, 선진국의 재정 지원이 전제라는 입장임.
- 한편 선진국은 칸쿤 당사국총회(COP16)에서 합의한 2020년이 되는 시점에 연간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장기재원조성 목표 설정.



-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데 있어 공공재원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민간의 자본과 기술 등을 유입하는 것이 필수적.
 - 기후변화의 완화와 적응을 위해 요구되는 비용이 막대하여 공공재원만으로 이를 충족시키기 어려움.
 - 공공부문의 적합한 정책 및 금융지원으로 민간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기후친화적인 기술개발을 장려하는 시장 인센티브 등을 반영한 민관협력의 역할 강조필요.

2. 기후변화대응 민관협력 필요성 대두

- 기후변화대응 민관협력은 정책적인 측면도 강하지만 현장에서의 니즈(needs)가 반영된 것으로 효과성 제고에서도 중요함.
 - 정부는 PPP를 통해 민간의 역량(자금조달, 기술능력, 경영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저렴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조달할 수 있음.
 - 민간기업은 민간기업 나름대로의 개도국 정부 및 민간기관 의사결정자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각 개도국 정보 및 분야별 수요과약이 용이하며 재정 및 사업리스크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기업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민관협력 분위기에 편승하여 기존의 방어적인 CSR (기업의 사회적책임)에서 탈피하여 CSV(공유가치창출)를 경영혁신의 핵심방법론으로 채택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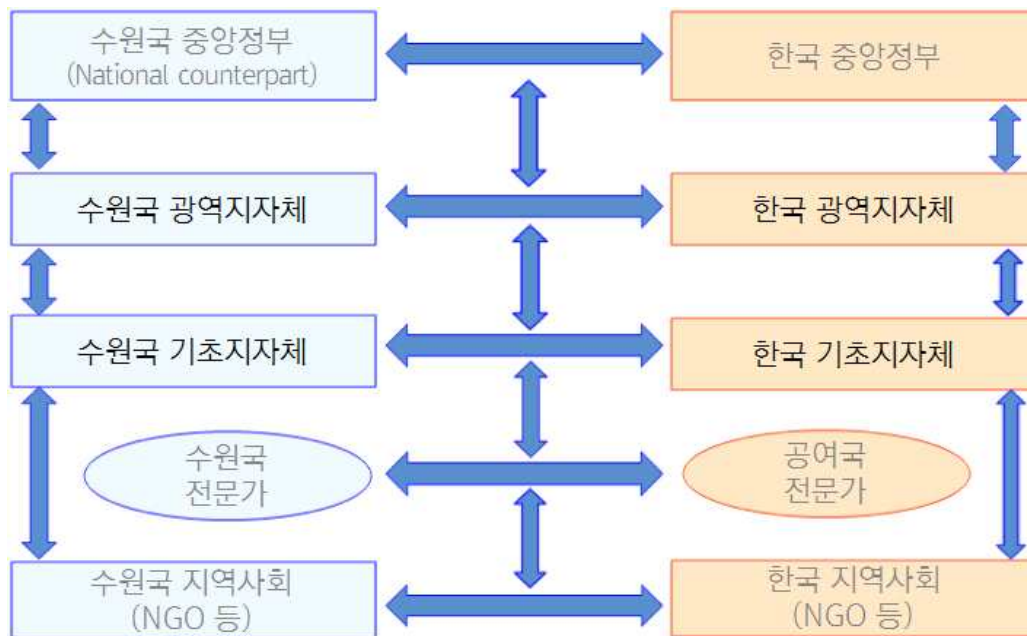
CSR과 CSV의 차이점

	CSR	CSV
가치	선행(Doing Good)	투입비용 대비 높은 사회경제적 가치
활동	시민의식을 전제로 한 자선활동	기업과 공동체 모두를 위한 가치창출
인식	이윤극대화와는 무관한 개념	이윤극대화를 위한 필수요소
예산	기업의 CSR 예산을 별도로 설정 (통상 매출액 대비 1%미만)	기업 전체 예산에 반영
담당부서	별도 부서구성	모든 부서에 반영
지속성	기업손익상황과 연계 (경제 위기시 사업수행 중지)	단기적 손익상황과 무관하게 진행
소통방향	기업이 사회에 대한 일방적 소통	기업과 사회(소비자)간 쌍방 소통
가치평가	사회 가치에 대한 평가시스템 마비	사회 가치에 대한 사전적 평가 시스템 구축
가치평가연계	기업의 가치와 사회 가치 연계미흡	단기적 사회가치평가와 장기적 사회 기업가치 평가의 연계

- 한편 유엔에서도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세계 최대 자발적 기업 시민 이니셔티브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참여를 독려하는 틀을 제공하고 있음.
- 또한 2015년 MDG(Millennium Development Goal)이후의 목표를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로 정하였으며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 소비, 생활, 인권분야에 기업과 시민들의 적극 참여를 독려하고 있음.

3. 지자체의 국제협력사업 참여 중요성 증가

- 지자체가 기후변화대응 민관협력사업에 이해당사자(stakeholder)로 참여함으로써 공여국과 수원국간의 다면격자형 네트워크가 가능하게 되며 이를 통해 굿 거버넌스를 이루게 함.
- 지자체 수준에서의 공적개발원조가 활성화 된다면 수원국 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공여국 주민들의 개발인식 제고에도 기여하여 전체 공적개발원조 사업 추진이 수월해질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내에도 중요한 행위자(player)로서 그 역할을 하지만, 이제는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며 ODA 및 국제협력사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외교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 듯 지자체의 대 개도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국제교류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근래 국제기구들과 원조기관들이 중앙 정부를 통한 지원보다 지방정부를 통한 분권적 국제협력(decentralized cooperation)의 잠재력을 인정하여 지방정부를 통한 원조를 늘리는 경향이 있음.



2 녹색기후기금(GCF) 민관협력사업 논의 동향

- (5차 이사회) 사업분야 관련 논의가 결과 관리 프레임워크(Result Management Framework) 논의 상에서 이루어졌으며 장기적으로 제시된 모든 분야를 포괄하되, 초기에는 분야별 우선 사업분야를 선정하나, 사업분야 간의 우선순위는 결정하지 않도록 하였음.
- (6차 이사회) 재원 분배 측면에서 감축과 적응 분야에 대해 50대 50의 비율로 재원을 배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재원 배분에서 적응 50%를 기후변화 취약국에 제공하고 또한 민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일정부분의 투자를 고려하기로 함.
- (7차 이사회) 현재 GCF 기금 실행을 위해 지난 5월까지 GCF운영에 필요한 8가지 필수요건(사업승인기준, 투자 및 재무리스크 관리방안, 결과관리방안 등)에 대해 기초적인 수준의 합의를 이룸.
- 또한 녹색기후기금은 한국의 유치과정에서 공약하고 독일이 출연한 능력배양 초기재원을 활용한 지원에 대한 원칙을 정하였음.

녹색기후기금 능력배양에 대한 지원 원칙

- a)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촉진하고 수원국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제공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함.
- b) 외부 전문가나 국제기관에 과도하게 의지하기보다 수원국 내부에서 지속되는 기관의 역량 육성을 목표로 하여 협력적이고 목표지향적인 방식으로 함
- c) 서로 다른 국가들의 특성과 다양한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 d) 결과와 이전 실행을 통한 배움에 기반하여 계속적으로 적응하고 개선함
- e) 기존의 이니셔티브와 지원 자원들을 보완하면서 일관성 유지
- f) 공공과 민간 양 영역의 관련된 이해당사자를 포함
- g) 성 인지적 일 것(gender-sensitive)
- h) 투명성을 유지

- (GCF 사업분야) 7차 이사회에서 결과모델상에서의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단위의 결과를 논의하였음.
- 5차 이사회에서 회원국들은 14개의 초기 사업분야를 결정하였으나, 기업이 실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사업분야는 감축분야와 교차분야 일부에 국한되어 제시되었음.



- GCF는 적응 및 감축 관련 민간부문 활동을 지분투자, 대출, 보증 등의 금융기법을 활용하여 지원하고 민간펀드에 투자, 펀드조성 및 민간자금 참여 지원, 채권 발행 등을 통해 민간자금을 간접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임.
- 기반조성지원 측면에서 GCF는 사업 실행을 위한 기초 수요조사 및 계획수립 등을 지원하며, GCF 실행 초기 정책 및 컨설팅 분야 사업 발주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강원도가 기후변화대응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녹색기후기금(GCF)의 사업분야 선정 동향을 예의 주시해서 추진할 필요 있음.



3 KOICA 민관협력사업 추진현황

1. KOICA 민관협력 사업

- KOICA에서 진행되는 민관협력 사업을 위해 민관협력실이 1995년부터 설치되어 저개발국가의 빈곤완화와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 세계 각국의 민간단체 및 기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1) 국별 민간단체 지원사업 실적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지원 금액 (백만 원)	1,018	1,734	1,102	1,038	2,011	2,781	5,275	5,710	5,964	6,157	10,399	10,389	10,671
지원 국가 (국)	15	16	17	14	19	15	19	27	26	30	29	31	30
사업 건수 (수)	27	28	25	21	32	24	43	73	72	79	101	81	88

2) 민간단체 사업 발굴지원 실적

- KOICA는 다양한 시민사회기관들의 개발협력사업 참여 확대 및 신규 개발협력 종사단체들의 민관협력사업 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업발굴지원 프로그램을 2012년부터 도입하였음.
- 기존의 국별민간단체지원사업의 지원 방식과 대상을 특화하여 신규/중소 규모 단체를 대상으로 국별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업수행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일종임.

년도	교육참여 기관 수	현지사전조사 지원수	현지사전조사 지원금액	차년도 사업지원 선정기관	사업비 지원총액
2012년	39기관	35 기관	3.6억원	19개 기관	13.3억원

3) 현지 시민사회단체 지원사업 실적

- 국내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현지 CSO에 대한 지원도 함께 실시하고 있음. 현지CSO를 통한 개발원조는 해당 분야·지역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현지 지역사회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는데 용이하다는 점에 착안을 둠.

2012년 현지 시민사회단체 지원사업 실적

Country	Name of the Organization	Project Title
Bolivia	CECASEM	Sustainable production for the economic empowerment of women of the commonwealth (canton) Conchupata.
Bolivia	FAUTAPO	Integral Strengthening of Young Women Heads of Families' Enterprises in the cities of EL ALTO and SANTA CRUZ
Bolivia	ITDG-Soluciones Practicas	Women and Quinoa, a socio-economic participation process for the development of highland communities
DR Congo	CEPROSOC	Enforcement of Professional Training Programme of Neglected girls, boys and housewives
Nepal	BEYOND Nepal	Menstruation hygiene education for school girls project
Nepal	BEYOND Nepal	Going For Farming With Joy Project (GFFWJP)
Vietnam	HHCSC	Community-based Support to Elderly Carers of Vulnerable Children in Hai Phong, Vietnam
Vietnam	CCRD	Enabling access to sustainable renewable energy and agricultural practices in Southern Central region of Vietnam

4) 글로벌사회공헌(CSR) 프로그램 연도별 사업 실적

구분	2010	2011	2012	2013
지원금액(백만원)	1,184	2,203	2,810	4,582
지원국가(국)	5	7	9	13
사업건수(사업)	5	10	12	19

2. 기후변화대응 민관협력사업 추진현황

-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 동안 이뤄진 KOICA의 민관협력사업은 대부분 교육 및 지역개발 분야의 사업들이었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분야의 사업으로는 6개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현황과 특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주로 에너지와 농업에 집중되어 있음
 - 에너지 분야사업으로는 대성에너지의 카자흐스탄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청정식수공급 및 녹색마을 조성사업, 아시아나항공의 캄보디아 앙코르유적 내 태양광 가로등 지원사업, GS칼텍스와 굿네이버스의 적정기술을 활용한 캄보디아 바탐방 지역 저소득층 에너지 개발지원사업 등이 있음.
 - 농업 분야 사업으로는 포스코와 기아대책의 모잠비크 마니싸 지역 빈곤퇴치 지원사업, 다비육종의 베트남 빈중 지역 양돈 교육 연수원 설립 및 운영사업, 포스코와 기아대책의 농업개발을 통한 짐바브웨 세케 지역 빈곤 퇴치사업 등이 있음.
- 재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관협력사업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든 사업에서 코이카와 기업이 50%씩 부담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비가 모두 5억 원 이상 든다는 특징이 있음.
- 그 중 1개의 사업은 3억 이하, 4개 사업의 예산은 약 5억~6억 원 규모이며, 다른 1개의 사업은 약 15억 원이 드는 큰 규모의 사업임. 이는 현재 KOICA의 민관협력사업들 중 가장 큰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
- 이와 같은 구체적 사업내용에 기초해 사업수행 주체의 특징을 살펴보면 3개 사업의 경우는 기업이 직접 현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3개 사업의 경우 NGO가 현지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환경 분야 민관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의 경우 참여 대상 확장에 있어 기업의 성격과 관련한 다층적, 다면적 고려가 필요하고 제도적 차원에서는 사업 발굴 방식 및 재정 분담 방식, 다양한 파트너십의 구축 등에 대한 고려와 민관협력사업 참여 주체의 행정 처리에 대한 부담을 줄일 필요 있음.



4 강원도 기후변화대응 민관협력사업 우선 추진분야

1. 강원도의 기후변화대응 국제협력사업 우선 추진 분야

1) 환경/기후 정책 및 컨설팅 분야

- 강원도는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를 조례를 통해 출연기관으로 설립하였으며 그동안 기후변화대응 관련 국가, 지자체, 유관기관, NGO,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책 및 제도를 만들어 오고 있음.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부, 농축산식품부, 산림청으로부터 수탁받아 수행한 탄소상쇄제도 구축 및 기후변화 적응계획수립 경험을 심분활용하여 향후 개도국의 능력배양측면의 정책 및 제도 연구용역 수행 가능.

2) 산림 분야

- 강원도는 2001~2009년 사이에 북강원도 지역에 국비와 도비를 투자하여 남북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

강원도의 북강원도 공동방제 활동 실적

년도별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계	솔잎 혹파리	넓적 잎벌	계	국비	도비	
합계	19,600	11,100	8,500	2,583,588	1,449,004	1,134,584	
2001	1,000	1,000	-	165,000	-	165,000	삼일포
2002	2,000	2,000	-	265,404	77,000	188,404	구룡연
2003	2,000	1,000	1,000	307,473	223,825	83,648	삼일포, 구룡연 북강원
2004	2,000	1,000	1,000	293,361	200,167	93,194	구룡연, 북강원
2005	2,500	1,500	1,000	318,436	160,618	157,818	삼일포, 구룡연, 북강원
2006	2,500	1,500	1,000	318,666	191,027	127,639	삼일포, 구룡연,만물상, 북강원
2007	2,500	1,500	1,000	323,759	201,374	122,385	
2008	2,700	1,600	1,100	290,906	194,490	96,416	구룡연, 북강원
2009	2,400	-	2,400	300,583	200,503	100,080	북강원



- 향후 GCF기금을 활용한 대북한 조림, 방제 등의 산림복원사업을 추진하여 탄소배출권확보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는 파이롯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 있음

3) 기후관련 건강 및 웰빙 분야

- 강원도 의료기기 산업은 수출중심형 산업단지로 구성되어 있어 2008년 현재 1인당 수출액이 1위를 차지하고 있음.

지역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 현황, 2008

	제조업체 수(개)	생산액 (백만원)	인원 (명)	1인당생산액 (백만원)	수출업체 수(개)	수출액 (천불)	수입업체 수(개)	수입액 (천불)
서울시	414	250,222	4,238	59	87	55,060	1,030	1,941,696
%	23.99	9.91	15.4		18.39	4.86	70.74	91.46
경기도	812	1,065,549	11,491	93	215	448,705	269	105,342
%	47.04	42.2	41.74		45.45	39.64	18.48	4.96
강원도	81	380,107	2,212	172	35	268,818	17	3,256
%	4.69	15.05	8.04		7.4	23.75	1.17	0.15
충청도	149	342,951	3,786	91	60	223,146	54	35,370
%	8.63	13.58	13.75		12.68	19.71	3.71	1.67
전라도	44	41,530	572	73	14	9,617	14	2,796
%	2.55	1.64	2.08		2.96	0.85	0.96	0.13
제주도	2	47	6	8	-	-	-	-
%	0.12	0	0.02		-	-	-	-
합계	1,726	2,525,203	27,527	92	473	1,132,006	1,456	2,123,076



- 저 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대응 민관협력사업 추진 시 기후관련 질병 퇴치 등의 기초의료분야와 연계하는 방안 모색 필요

2. 우선 추진 분야 SWOT 분석

1) 환경/기후 정책 및 컨설팅 분야

- 기후변화 해외사업 R&BD 기관으로서 강원도의 Think Tank 역할을 할 수 있는 CRİK을 활용 대개도국 기후 인프라 구축 및 국내 제도 개발 경험 이식 추진 가능.

내부 역량	강점요인 (Streng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최초로 설립된 기후변화대응 전문연구기관 보유 • 국가 및 광역/기초지자체 위한 기후변화 제도개발 및 컨설팅 • 국내 기후변화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 체계 구축 • IUTC/UN HABITAT와 연계 공동사업 추진가능
	약점요인 (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사업 경험 부족 및 해외사업 추진 인프라 미흡 • 개도국 및 선진국 네트워크 및 다양성 구축 미흡 • 강원도내 PPP사업 희망 대상업체 수의 부족
외부 환경	기회요인 (Opportun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반플랫폼 채택에 따른 2020 글로벌 기후변화대응체제 도래 • 정부 및 지자체의 기후변화대응 정책 강화 •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도 및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 • 기후변화대응 국제협력기회 증대 (GCF사무국 유치 등) •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기후친화 환경올림픽 지향) • 강원도의 풍부한 탄소흡수원 및 신재생에너지 자원
	위협요인 (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기후변화분야 투자 위축 • 선진국과 개도국사이의 기후변화당사국총회 합의 지연 • 경북, 경기도 등 타지자체의 기후변화 국제협력분야 선점노력

⇒ KOICA, 녹색기술센터, GCF에서 발주될 저개발 국가의 능력배양사업 측면에서의 다양한 환경/기후 컨설팅 기회를 살리며, 유사 연구기관들과의 압도적 차별화를 이루어 지속적인 정책연구 용역을 수주할 필요 있음.

2) 산림 분야

-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유일한 흡수원인 산림을 십분 활용한 대개도국 기후변화 민관협력사업 추진 가능.

내부 역량	<p>강점요인 (Strengt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혜의 자연경관과 울창한 산림자원 보유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에 대한 정부차원의 강한 의지 • 산림청의 지속적인 국제 산림협력 정책 추진 • 강원도=산림도라는 국내·외 이미지
	<p>약점요인 (Weaknes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사업 경험 부족 및 해외사업 추진 인프라 미흡 • 산림자원의 지속 가능성 기반 미약 • 사유림 경영, 지도체제 미비
외부 환경	<p>기회요인 (Opportun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의 국제적 중시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 중시 및 산림자원 가치 증진 • 산림인증제, 탄소배출권 인정 등 산림에 유리한 국제환경변화 • 녹색산촌, 농촌테마마을 등 산림생태계를 이용한 관광상품화 확대
	<p>위협요인 (Threa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에 의한 산불, 산사태 대형화와 빈발화, 산림병해충 심화 • 산림보전의 필요성 증가와 국제적인 협력요구의 증가 • 목재자원의 해외 의존도 증가

⇒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부족한 경험과 인프라를 극복하기 위한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CRIK에서 개발한 산림탄소상쇄제도와 접목시켜 강원도의 특화분야를 개척하며, 나아가 유일한 남북분단 도로서 대북한 산림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GCF 재원을 활용한 적극적인 정책제안 필요.

3) 기후관련 건강 및 웰빙분야

- 기후변화 심화로 발생하는 질병퇴치를 해외시장 개척기회로 적극 활용가능. 2015년부터 수행되는 동카자크스탄주와 ODA재원을 활용한 응급의료 역량강화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과 파생되는 사업 개척 가능.

내부 역량	강점요인 (Streng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의 첨단의료기기 산업개발 방안, 의료융합 사업, 바이오 의약품 개발 의지가 강함 • 건강/웰빙 산업과 맞는 청정환경 • 동 카자크스탄의 응급의료에 관한 ODA사업 추진
외부 환경	약점요인 (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의 의지를 실행시킬 수 있는 추진력 부족 • Value Chain기반 시설 부족 및 지역적 개발이 낙후되어 있음 • 건강/웰빙 분야 국제협력 추진 전문 인력 부족 • 기술 및 마케팅 능력 부족
외부 환경	기회요인 (Opportun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관련 질병퇴치를 위한 의료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정부의 지방이전 기업 종합지원 대책 • 동남아, 중국 등 신흥시장 출현 • 접근성 개선
외부 환경	위협요인 (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 • 중국의 산업 기술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경쟁력 제고가 필요 • 선진국의 기술이전 회피 및 세계적 기업체의 개도국 진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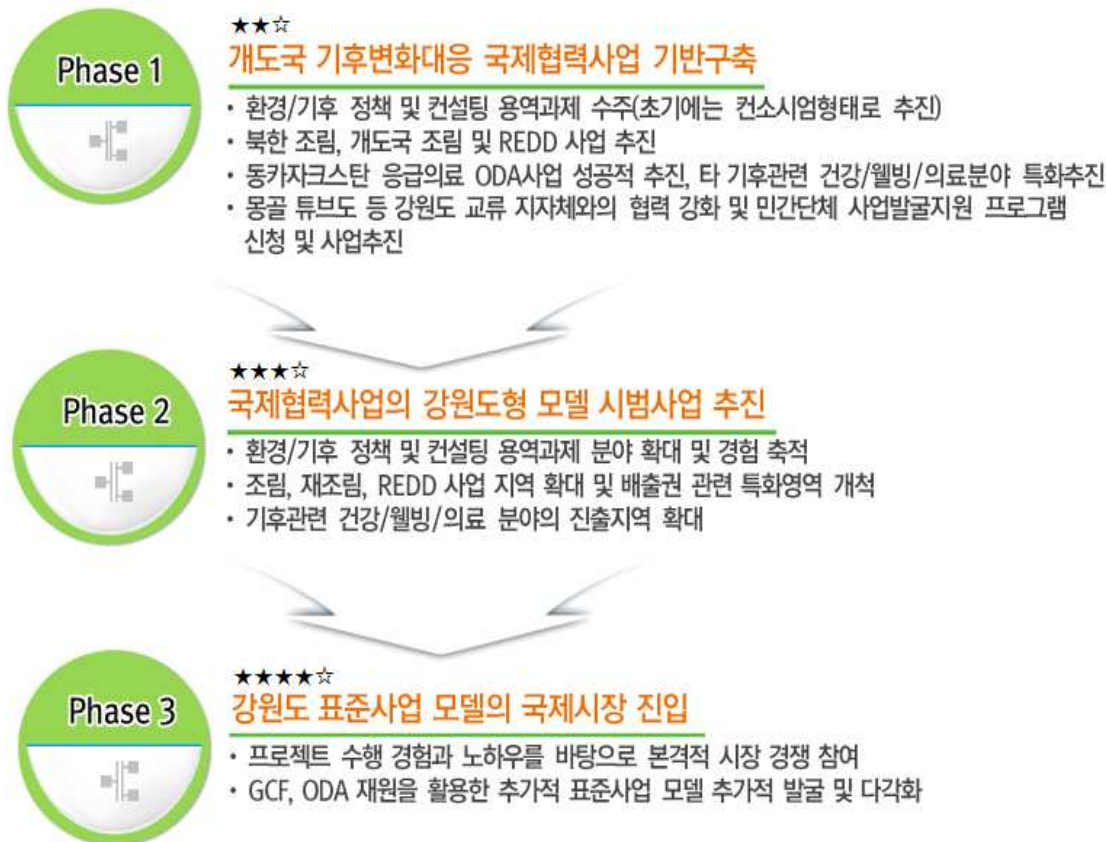
⇒ 의료분야 제1호 지자체 ODA사업의 성공적 모델 창출과 이로 인한 지속적인 후발사업을 연결시킬 필요 있음. 현재 논의되고 있고 향후 추진될 KOICA와 GCF의 교차분야 및 융복합사업을 추진할 필요 있음.



5 강원도 기후변화대응 민관협력사업 추진전략

1. 강원도 기후변화대응 민관협력사업 추진 장기 로드맵 수립

- 강원도의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민관협력사업 추진은 크게 장기적인 전략적 측면과 트랙 레코드와 경험을 축적하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있음.



- 강원도는 사업형성의 기초가 되는 Phase 1단계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 있음. 우선은 기후변화 분야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 CRIK을 활용한 환경/기후 정책 및 컨설팅 용역과제 수행을 통해 기초 역량을 튼튼히 할 필요 있음.
- 환경/기후 정책 및 컨설팅 용역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미 개도국 국제협력사업의 경험과 인프라를 갖춘 기관과의 MOU를 추진하여 외연을 강화하고 단독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컨소시엄 형태로 접근할 필요성 있음.

2.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민관협력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 도내 개도국 기후변화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이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정보의 공유 및 연대를 이루어야 함.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민관협력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구 분	주요내용
협의체 구성	도·시·군 및 연구단체 + 외부전문가 및 단체(5) + 도내 산업체 ※ 도내 기후변화대응 산업체는 프로젝트별로 참가 유도
협의체 역할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민관협력 사업 수요 조사 및 기후, 개발 자원 및 GCF기금을 활용 유관 강원도 환경산업체의 사업진출 지원 및 육성
협의체 운영	협의체를 임시로, 혹은 특별(ad-hoc)하게 운영하기 보다는 상설(standing) 기구로 운영하여 업무효율을 높이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

- 협의체에서 수행하게 될 업무 중에는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계획수립, 현황조사 등 시범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음. 국제도시훈련센터(IUTC) 교육 사업으로 기 확보된 개도국의 인적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음.
- 강원도의 강점과 특색을 부각시킬 수 있는 사업아이템을 선정하고 작고 실속 있는 규모의 사업을 전개한 후 다각화와 확장 도모.
- 협의체의 활동을 통해 저개발국 기후변화대응 관련사업 수요와 강원도내 대학, 기업, 연구소 등이 보유한 적정기술과 프로그램을 연결시켜주는 통로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민관협력 우선추진 분야별 전략수립

1) 환경/기후 정책 및 컨설팅 분야

	단기 (2015~2017)	장기 (2017~)
용역연구사업 수행	1건/년	2건/년
공동연구사업 참가	1건/년	2건/년
재원	KOICA/EDCF	KOICA/EDCF
사업분야 다각화	국내 공여기관 대상	국내 + 국외 공여기관 대상
목표수주액	1억원/년	2억원/년

- KOICA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 발주되는 연구용역과 기타 정부 유관 기관에서 공고되는 기후변화대응 국제협력 연구용역을 수행해야 함.
-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서 국내 공여기관과 정부 유관기관에서 발주하는 용역연구를 추진하되 강원도의 강점을 부각할 수 있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염두에 둔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이 필요.
- 연구용역 수행 이후, 실제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고 강원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나라 뿐 아니라 전략적으로 최근 국제개발사회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기후변화 정책 연구 용역을 수행 필요.

2) 산림 분야

	단기 (2015~2017)	장기 (2017~)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 참여 수행(탄소배출권 관련)	1건/년	2건/년
공동연구사업 참가	1건/년	2건/년
재원	KOICA/EDCF + GCF	KOICA/EDCF + GCF + 해외 공여기관
사업분야 다각화	파일럿 프로젝트로 북한조림 및 산림복구, 방제사업 등 추진	민간기업(강원랜드) 및 공공기관(광해관리공단 등)과 협력추진
사업대상지역	북한, 몽골, 아시아	아프리카 및 극빈국으로 확대

- 강원도는 유일한 남북 분단도이자 대한민국의 허파 역할을 하는 산림도라는 인지도를 십분활용해 녹색기후기금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 있음.
- 강원도는 그동안 2001~2009년 사이에 삼일포, 구룡연 등 북강원도 지역에서 남북 병해충 공동방제 활동을 전개한 기록을 가지고 있음. 이와 같은 경험과 강원도의 특색을 살린다면 북강원도 백두대간 생태복원사업 등을 전개하여 대북협력 이슈를 선점할 필요 있음.
- 그 밖의 개도국 조림사업 및 REDD+ 등을 추진하되, 해외 사업지사 부재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컨소시엄 구성, 역할분담을 통해 접근할 필요 있음. 민간기업의 전략적 CSR사업과 연계하고 기업의 산림탄소배출권 확보의 상생전략 구사 필요.

3) 기후관련 건강/웰빙 분야

	단기 (2015~2017)	장기 (2017~)
ODA 사업 수행	1건/년	2건/년
예산	30억원/3년(기 확보)	20억원/년
재원	KOICA/EDCF + GCF	KOICA/EDCF + 민간기업
사업분야 다각화	동카자크스탄 응급의료사업 성공적 수행	강원도 의료기기 산업수출 등 추진

- 강원도는 지자체로는 최초로 동카자크스탄 응급의료 분야 ODA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인 국제협력사업 추진의 귀중한 트랙 레코드를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음.
- 또한 강원도는 2008년 현재 185천불의 의료기기 수출로 1인당 수출액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수출 중심형 의료기기 산업도입. 이러한 강점을 살릴 필요 있음.
-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국제협력분야는 기후변화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질병에 대한 기초의료 시스템을 구축과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

- 발 행 인 : 홍 성 태
- 발 행 처 : (재)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 발행번호 : 2014-20호
- 발 행 일 : 2014년 12월 24일

.....
www.crik.re.kr